**벧전0209 Note**

**◆벧전0209노트: 용어 왕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들의 왕국(출1905-6, 시8927, 사6106, 계0106,계2006)**

본문은 출1906의 인용으로 보입니다,

출1905. 그러므로 이제, 만약 너희가 내 음성에 참으로 청종하고 또 내 혈약[베리트:바라(고기)에서 유래,자르다,조각들,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감으로 맺는 언약,계약,동맹연합,연맹,약조: 창1510 참조]을 지킬 것이면, 그 경우에는 너희로 모든 민족들 위에서 내게 특별한 보화[쎄굴라:(비밀히 잠가둔)재산,보석,특별한 소유나 보화,고유의 선함,특별한]가 되게 할 것이니라. 이는 온 땅이 내것임이라.

출1906. 그리고 너희로 내게 제사장들의 왕국(맘라카,마믈라카:지배,통치나 그 땅이나 영토,왕국,왕의,통치)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들의 것들이 네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해야 하는 말들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만이 제사장들이 나올 것이다,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다른 민족에 대하여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사6106.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 일컬어지느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부르느니라.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으며, 또 그들의 영광 중에서 너희가 자랑하느니라.

시8927. 또한 내가 그를 내 맏아들로, 땅의 왕들보다 더 높게 만들 것이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어 질 것이라,

땅의 왕들보다 더 높게 만들 것이다, 바꿔 말하면, 땅의 왕보다 더 높은 왕들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1장 6절과 5장 10절을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계0106. 그리고 하나님(구약 엘,엘로힘/신약 데오스)이시자 그분의 아버지께 우리를 왕(바실류스:주권자,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드셨던.

계0510. 그리고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 왕(바실류스:주권자,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드셨음이라, 이에 우리가 땅 위에서 다스리나이다(바실류오: 통치하다,다스리다,왕노릇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들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한데, Niv 성경, nasb성경은 “왕”을 “왕국”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확대번역 성경은 왕국(왕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이면, 그분이 왕이실 때. 우리도 왕이며, 그분이 제사장이실 때 우리도 제사장으로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속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를 확증하는 주요한 말씀이 있으니, 바로 출2906과 레0809과 계2006의 말씀입니다,

출2906. 그리고 너는 그의 머리 위에 두건(頭巾)[미쯔네페트:관(冠),(왕이나 대제사장의)직무상의 '머리에 감는 수건',머리띠]을 놓고, 두건 위에 거룩한 왕관[네제르:구별된 어떤 것,(제사장이나 나실인의)헌신,깍지 않은 머리털,(왕권의)화관,봉헌,왕관,머리털,구별]을 놓을지니라,

레0809. 그리고 그가 저의 머리 위에 두건[미쯔네페트:관(冠),(왕이나 대제사장의)직무상의 '머리에 감는 수건',머리띠]을 놓으니라, 또한 두건 위에, 바로 그의 이마 위에 그가 금 이마패[찌쯔:반짝임,(닦아서 빛나는)장식패,(밝은 색갈의)꽃,(공중에서 빛나고 있는)날개,개화] 곧, 거룩한 왕관[네제르:구별된 어떤 것,(제사장이나 나실인의)헌신,깍지 않은 머리털,(왕권의)화관,봉헌,왕관,머리털,구별]을 놓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느니라,

제사장에게 왕관을 주셨습니다

계2006. 첫째 부활에서 몫(메로스: 분배,나눔,해안,과정,기교,특별한,부분,부분적으로,조각,몫)을 가지고 있는(참여하는)그는 복되며, 거룩하니라, 그러한 자들 위에 둘째 사망이 아무런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느니라.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며, 또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리느니라.

4개 영어성경 공히,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어 그분과 함께 다스린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왕으로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다음은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호크마 주석의 내용입니다,**

▶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

본문은 출19:6의 인용으로 두 가지로 해석된다.

(1) 혹자는'왕정의 제사장' 곧 왕에게 속하여 왕을 섬기는 제사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Bengel, Stibbs).

(2) 혹자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롬 5:17,Clement, Bigg, Stibbs, Blim).

이러한 두 가지 견해 중 후자가 타당하다.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만국 통치하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이다.

**다음은 스테판 차녹의 견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계1;6).

 '왕들'이라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 안에 왕족이 지니고 있는 고결한 품성을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라는 말은 이러한 왕족의 고결한 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왕족으로서의 영을 지니고 있는 영혼이 그 성품에 적합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형식주의자가 왕족 흉내를 내는 것 만큼이나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스테판 차녹, 거듭남의 본질, P135>